

1. 일반 당뇨병자와 보호자들에 의한 평가

일반사용자들은 당뇨 발병시기가 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46.8%), 1년에서 2년 미만(16.6%)과 5년 이상(16.6%)이 다음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용자들의 당뇨 형태로는 NIDDM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3.8%) IDDM이 23.1%이었다. 사용자들은 당뇨 관리방법 중 식사요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1%). 홈페이지의 콘텐츠의 17개 항목의 유용성에 대해 모두 4점 이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당뇨병에 대한 영양 및 식단 정보(4.33~4.50점/5점), 식단작성 프로그램 과정(4.38~4.52점/5점), 당뇨 상담실(4.32점/5점) 등 전문적인 내용이 비전문적인 내용(4.07~4.27점/5점)에 비해 유익했던 것으로 평가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상시 식단 작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과정의 복잡하여 번거롭다'였으며 본 사이트의 내용 중 가장 어려운 부분도 식단작성과정이라고 하였으나(35.1%) 식단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는 비교적 쉬웠던 것(3.95점/5점)으로 평가하였다. 당뇨 식단 작성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다고 답하여(전체의 48.6%) 음식의 D/B를 제시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식단의 결과물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교환군 보기의 출력화면으로 전체의 46.5%가 어렵다고 답하여 당뇨식단의 기본인 교환단위에 대한 개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이트에서 작성한 당뇨식단이 실생활에 활용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평균점이 4.00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상담실에서는 전체 평가원의 40.6%가 깊이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다.

2. 임상영양사들의 평가

본 홈페이지의 내용 중 가장 어려웠던 항목으로는 당뇨 다이어리 내용 중 식단 작성에서 3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당뇨병 정보의 약물요법(23.3%)이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들 중 유익했던 것으로는 비만도 평가(4.56점/5점)> 식사요법(4.50점)>당뇨일기(4.46점)>추천사이트(4.40점) 순이었으며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당뇨병자를 위한 식단 작성시 '칼로리 계산이 어려웠다'와 '매번 직접 식단을 짜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다'가 동일한 정도(30%)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식단 작성 과정의 설명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 3.90점/5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식단 작성 과정 중에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선택하는 부분과 기타가 모두 43.3%로 가장 높았으며 작성한 식단의 결과물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화면은 교환군 보기와 기타의 출력화면이 모두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뇨 상담실에 대한 평가에서는 역시 '상담에 대한 답변이 빈약하다'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P-54】

공중파 TV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 분석(2002-2003년)-뉴스, 건강관련 정보프로그램, 드라마 문현경 · 장영주

단국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식품영양정보학과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현대인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중매체에서도 영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매체 중 공중파 TV 프로그램에서의 정보들은 쉽게 접할수 있어 올바른 영양 및 건강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지침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로서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시간상 제작환경상 등의 제약으로 인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에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유형별로 분류,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매체중 공중파 TV프로그램 중 정확한 보도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드라마 중 가족 드라마를 선정하여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의 양적 질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관련 식품영양 정보들에 대한 건수, 시간수, 주제, 취재원, 적절성과 부적절성 평가 및 부적절성의 요인들을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여 연도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2002년도 4월 30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모니터링 전문 교육을 마친 식품영양학 전공 모니터링이 조사 기간 중 담당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각 프로그램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의 양과 질을 조사하여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 및 평균분석을 하였다. 총 모니터건수는 15,226건이었으며, 이중 총 건강관련정보건수는 5,623건으로

36.9%를, 식품영양관련 정보는 4,848건으로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건강관련 정보 대비 식품영양정보 건수의 비율은 86.2%로 높게 나타났다. 뉴스프로그램의 총 건강관련 정보수는 17.9%에서 16.1%, 식품영양정보수의 비율은 6.6%에서 3.6%로 낮아졌으며, 건강정보프로그램의 총 건강관련 정보수는 51.5%에서 94.6%, 식품영양정보수의 비율은 32.4%에서 57.4%로 높게 나타났다. 드라마의 식생활관련 장면 방송시간비율은 20.8%에서 17.2%로 낮게 나타났다. 뉴스프로그램에서 건강관련정보가 가장 많이 보도되는 달은 2002년 10월, 2003년 9월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정보의 주제로는 뉴스프로그램은 질환, 건강정보프로그램은 음식, 어린이교육프로그램은 식품, 노인정보프로그램은 생활습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의 취재원으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터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식품영양정보의 부적절한 평가율은 뉴스는 49.3%에서 72.2%로, 건강정보프로그램은 54.0%에서 67.8%로 2002년보다 2003년도에 높게 나타났으나, 드라마는 63.2%에서 16.2%로 낮게 나타났으며, 어린이교육프로그램 40.0%, 노인정보프로그램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식생활 장면에서 음식의 양이 부적절한 경우는 28.6%에서 15.8%로 낮아졌으나, 음주장면의 경우 10.7%에서 11.5%로 증가하였음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 장면의 경우 드라마상의 흡연장면 방송금지 선언의 여파로 1.6%에서 0.2%로 감소하였다. 뉴스 및 정보프로그램에서는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정보들은 적정섭취량이나 실생활에 활용할 실천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영양가 비교기준이 다르거나, 식품 등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의 경우 음주, 커피, 야식 등 불필요한 식사장면이 많이 나오거나 음식의 양이 사람수에 비해 많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TV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건강관련 정보기사가 차지하는 비율과 이 중 식품영양정보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관련정보기사의 질적인 평가에서는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P-55】

간호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영양지식

윤현숙 · 최운영¹⁾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마산 복음병원¹⁾

영양사들이 영양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과중한 급식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사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영양상담이나 영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도 있어 간호사들이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병원도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영양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역할 확대를 위하여서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타 의료진의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마산시와 창원시 및 경남함안군에 위치한 2-3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중 간호사(197명)와 간호조무사(94명) 291명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중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영양지식을 조사하였다. 환자에 대한 영양교육이 '매우 필요하다'에 74.2%, '약간 필요하다'에 32.8%를 보였으며, 간호사와 전문대 졸업이상에서 간호조무사와 고졸자에 비하여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 < 0.001$). 영양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47.9%, 이수한 자는 52.1%이었으며, 간호조무사(60.4%)가 간호사(42.1%)에 비하여($p < 0.01$), 그리고 근무경력 2년 이상(51.5~59.4%)에서 2년 미만(34.4%)에 비하여($p < 0.05$) 영양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관련 과목 이수자 중 영양지식 습득정도는 58.7%가 '부족'한 것으로, 40.6%가 '보통'인 것으로 답하여 대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부족'하다고 답하여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5$). 영양교육 연수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6%, 없는 자는 91.4%로 간호사에게 영양교육 연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담당자의 적임자로는 영양사 69.3%, 간호사 21.3%로 답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영양교육 적임자로 영양사 82.7%, 간호사 5.8%로 답한 반면 간호사는 영양사 63.5%, 간호사 27.9%로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01$). 기회가 주어지면 영양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대상자가 47.2%,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가 52.8%로 약 1/2정도는 기회가 온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영양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상자의 43.4%가 '전문지식 부족', 40.5%가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가 '업무량 과중'을 이유로 들었다. 환자치료 시에 영양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8.8%, 지